충남도립대학교 합격수기

안녕하십니까. 저는 2023년도에 경찰행정학과 14기로 졸업하고 중앙경찰학교 314기로 입교하게 된 김○○입니다.
저는 학교생활과 병행하면서 필기를 준비했습니다. 2학년 재학 중이었던 21년 6월부터 인강을 듣기 시작했으며 졸업할 때까지 꾸준히 들었었습니다. 물론 학교생활과 병행을 하다 보니 인강커리를 맞추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었기 때문에 최대한 커리에 뒤처지지 않도록 노력했었습니다. 오전에 수업이 있을 땐 수업이 끝난 후 기숙사로 돌아와 바로 책상에 앉아 공부를 시작하고 오후에 수업이 있을 땐 오전 7~8시부터 등교 준비 전까지 공부를 해왔습니다. 경찰 시험 역시 개편 전이었던 21년 2차 시험부터 제가 준비가 되지 않았을 때부터 시험장의 분위기를 느껴보고 싶었기 때문에 계속 응시해 왔습니다. 필기에서 제가 가장 말씀드리고 싶다는 것은 필기 합격은 입장권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23년 2차 필기시험에서 1.8배수, 즉 필기 커트라인으로 합격했습니다. 물론 필기에 합격했다는 사실에 기뻤지만, 불안감도 당연히 따라왔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체력 시험을 준비하면서 좋은 체력 점수를 얻게 되어 1배수 안으로 진입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필기가 끝이 아니라는 것을 잘 기억하면서 체력, 면접까지 열심히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 **필기**(헌법35 형사법92.5 경찰학 85 총점212.5 1.8배수)

[헌법]

필기 과목 중 헌법이 가장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 결과 실제 시험에서도 좋은 성적을 얻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헌법은 과목 특성상 굉장히 추상적인 부분이 많아 공부하는 것에 대해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우선적으로 기본서 정독을 한 후에 기출문제와 진도별 문제집, 동형모의고사 등 최대한 많은 문제를 풀었습니다. 헌법 또한 형사법처럼 최신판례가 중요시되고 있기 때문에 최신판례도 많이 보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형사법]

형사법은 한 번 이해 한순간 가장 수월해지는 과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재산죄, 전문법칙 등 조금 어려운 파트들에 대해서는 꾸준히 기본서를 회독하고 문제집을 여러 번 풀면서 익숙해져야 합니다. 또한 사례형 문제 역시 최소 1문제 이상 나오기 때문에 최대한 많이 풀어보시면서 사례형 문제에

대한 풀이법을 잘 숙지하셔야 합니다.
[경찰학]
경찰학은 굉장히 휘발성이 강한 과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꾸준함이 정답인 것 같습니다. 또한 개정이 많이 되기 때문에 개정된 법들의 정보들을 빨리 캐치하여 공부를 해야합니다. 예전 시험들에 비해 문제자체도 조금은 응용력이 필요하도록 출제가 되고 있는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기출문제집은 기본으로 하고 진도별, 동형모의고사와 같은 문제집을 많이 풀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체력**(총점46점 배수1.8→0.5배수)
저는 필기시험 두 달전부터 체력을 병행해왔습니다. 일주일에 3일씩 오전에 1시간정도 운동해왔습니다. 필기시험에 합격한 후 체력학원에 등록하여 10회정도 수업을 들었었습니다. 학원 수강생 중 저만 여성이었기 때문에 남성 수강생과 똑같은 강도로 수업을 받았고 그 결과 체력 고득점으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충남청은 윗몸일으키기를 제일 빡세게 보는 것 같습니다. 또한 체력 기준이 상향되면서 여경지원자에서는 악력으로 점수차가 많이 벌어집니다. 철봉매달리기, 악력기 등을 사용하여 미리 악력을 늘리셨으면 좋겠습니다. 필기시험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체력 또한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몸소 보여드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여러분들도 조금 힘들겠지만 공부하면서 체력을 미리 기르신다면 더욱 좋은 결과가 생길 것입니다.

■ **면접**(환산70.5점 1배수+3점)
저는 말하는 것에 자신이 없는 사람이고 면접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학원을 다니면서 준비해왔습니다. 학원에서 짜준 조원들과 스터디를 하면서 굉장히 심적, 육체적으로 어려움이 있었지만 정말 마지막 관문이라는 것을 되새기며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에 가장 크게 느낀 것은 경험이었습니다. 저는 코로나 학번이라고 할 수 있는 20학번이기 때문에 학교에서의 경험이 부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서 견학, 학과 행사 등 많은 경험을 했다는 것을 면접 준비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학교 생활 중 여러 경험들을 짧게나마 기록해두는 것도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충남청은 면접날짜가 다소 늦은 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실시한 다른 청들의 질문들을 미리 받아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집단면접에서 다소 어려운 주제들이 나왔었고 그 주제들을 보며 저는 굉장히 당황했

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동안 공부해왔던 것들을 되새기며 흔들리지 않고 제가 해야할 일들을 계속하여 해왔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꾸준히 노력한다면 반드시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찰시험 준비를 하면서 '내가 정말 합격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분명 있을 겁니다. 제가 그랬으니까요. 하지만 노력해서 안 될 것은 없습니다. 꾸준히 하다보면 언젠간 좋은 결과가 따라오게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적은 시험준비 방법이 정답은 아닙니다. 각자 본인의 상황과 공부법에 따라 열심히 한다면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경찰을 꿈꾸는 우리 경찰행정학과 모두 좋은 일만 생기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